

## 지역축제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Local Festivals on Consumption Expenditure

Young-Duk Kim<sup>a</sup>

<sup>a</sup>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6 November 2017, Revised 03 December 2017, Accepted 22 December 2017*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local festivals on consumption expenditures. We uti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r days of local festivals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to estimate how local festivals affect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estimation, we use regional panel data with the 16 large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2004-2014. With the estimation results, we find as follows. First, the estimated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festivals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appears non-linear and inverted-U shaped. There are optimal numbers and days of local festivals to maximize regional aggregate consumption expenditures. Second, the transportation expenditure also has a inverted-U shaped relation with number and days of local festivals. Third, the expenditure for entertainment & culture has a inverted-U relation to number of local festivals, but is not related to days of local festivals. Fourth, the expenditure for foods and accommodations has a inverted-U shaped relation with the number of festivals but increases with the days of local festivals.

**Keywords:** Consumption Expenditure, Festivals, Regional Effect

**JEL Classifications:** E21, O18, R11

#### I. 서론

지역축제의 주요 기능은 지역문화의 전승·보전, 지역민의 주민화합, 지역이미지 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중에서 특히 현대의 축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축제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sup>a</sup> E-mail: ydkim@pusan.ac.kr

© 2017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다.<sup>1)</sup> 축제가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축제의 양적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축제 수는 758개이며, 서울(113개)이 가장 많고, 울산(11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축제예산은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약 2,219억원이며, 축제 당 평균 예산은 2억9천만원이며, 1억 미만의 예산을 가진 축제가 40.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06~2016년 기간 동안 집계한 지역별 지역축제 개최계획에 따르면, 2006년 지역축제는 총 726개가 개최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8년에는 926개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줄어들어 2016년 현재 693개의 축제가 계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후반까지 지역축제의 양적 확대는 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시행된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으로 지역축제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획일적인 이벤트성 행사, 무분별한 벤치마킹, 지역민의 참여부족, 역사적·지역적·전통적 고유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축제 개최계획에 따르면 지역축제의 개최 숫자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축제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 기여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였는지, 이러한 기여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 지역축제와 지역경제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동시에, 지역축제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6)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전후방효과,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연구가 첫 번째 유형이고 이러한 연구는 축제예산, 관광객수, 지출액 등을 기반으로 시·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둘째 방법론은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제에서 지불한 지출액 응답을 기반으로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 두 유형 모두에서 축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2)</sup> 또한, 두 유형 모두에서 대체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축제에 국한되어 국내의 전반적인 집계효과를 상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축제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 축제방문객은 축제와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를 안게 되어 축제 간 경합에 따른 축제의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는 경우, 국내 지역 모두를 포함시켜 실증적 분석을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추정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동일 권역(예를 들면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에 추가적인 지역축제의 등장이 그 권

1) 축제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Oh Hoon-Sung (2013)에서 인용하였다.

2) 이러한 과대추정의 가능성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료상의 문제로 특정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수나 지출액수 등이 과대하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모형상의 문제로 축제가 경합성을 가지는 것을 추정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대추정의 가능성이다.

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축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근거에는 축제 개최 지역의 방문을 통해서 소비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축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논의가 가장 일반적인 축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지출 증대가 해당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의 지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축제변수가 지역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의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축제변수와 지역소비지출의 관계뿐만 아니라 축제변수와 지역소비지출 항목(교통비지출, 오락문화지출, 음식숙박지출)의 관계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의 대상은 16개 시도로서, 표본기간은 대체로 2000~2014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축제의 수와 축제기간의 변화가 지역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하였다. 축제변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식은 소득대비 소비지출에 대해서 축제변수가 한계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축제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일 수 있다는 논의를 검증하기 위하여 축제변수의 제곱항을 추가하여 추정식을 구성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한편,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그 지역의 소득수준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축제가 지역경제변수와 함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추정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축제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GMM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지역 축제의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축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장에서는 지역 축제가 소비지출과 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추정방법과 자료를 검토하여 추정식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여 추정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I. 지역축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1.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

축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로서, 경사스러운 날에 드리는 제사에서 비롯되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누대에 걸쳐 축적한 고유문화를 특정한 기념일에 표출하는 축하행사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지역축제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정해진 일자에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준비 개최되는 축제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삶과 전통 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로서 정의된다.<sup>3)</sup>

1960~1970년대 향토축제발전계획으로 지역 축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1시군 1향토축제 지원정책에 따라 지역마다 예술제나 문화제의 형태로 축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에는 80여종, 1980년대 중반에는 120여종의 행사가 진행되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축제는 급격하게 증가되어 2000년대 들어 지역축제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able 1〉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집계된 16개 시도의 지역축제계획에 근거한 지역축제

3) 여기서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6)에 수록된 정의에 따른다.

의 수의 합계를 제시하고 있다. 집계된 축제 수는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충남(90), 경기(83), 경북(81), 서울(71) 등 총 693개의 축제가 개최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73), 강원(61), 충남(58), 경남(57), 서울(55) 등 총 555개의 축제가 개최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래의 <Table 2>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

역축제의 축제기간을 합한 합산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축제는 4644일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최기간이 긴 지역은 충남(856), 서울(771), 강원(531), 경기(456)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축제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지역축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Table 1. Regional Festivals by Year and Region

Year	Total	Seoul	Pusan	Daejeon	Incheon	Kwangju	Daejeon	Ulsan	Sejong	Kyungki	Kan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Kyungbuk	Kyungnam	Jeju
2004	554	32	44	13	11	15	8	9		60	74	39	41	32	41	52	68	15
2006	726	15	60	26	20	10	8	20		63	117	59	67	33	46	65	56	61
2007	716	18	68	18	21	17	14	17		61	118	57	91	46	45	69	30	26
2008	926	120	51	25	25	13	20	24		87	110	52	87	51	85	52	91	33
2009	921	119	47	33	27	10	22	27		115	105	50	81	50	47	48	112	28
2010	823	69	44	24	23	13	16	21		93	93	51	76	62	34	51	122	31
2011	763	94	38	30	30	14	8	11		76	86	48	68	51	38	50	89	32
2012	758	113	39	29	31	14	14	11		73	78	51	63	48	38	43	85	28
2013	752	108	41	35	29	8	18	11	4	74	76	53	64	54	38	41	70	28
2014	555	55	29	21	12	10	10	10	2	73	61	30	58	35	37	40	57	15
2015	664	119	39	19	10	6	9	11	2	60	69	38	56	37	86	44	43	16
2016	693	71	30	23	22	10	9	10	2	83	61	37	90	47	44	81	44	29

Sour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d.).

Table 2. Regional Festival Days by Year and Region

Year	Total	Seoul	Pusan	Daejeon	Incheon	Kwangju	Daejeon	Ulsan	Sejong	Kyungki	Kan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Kyungbuk	Kyungnam	Jeju
2006	3732	97	184	174	109	93	32	61		411	538	198	599	205	188	254	315	274
2007	3762	183	222	121	78	110	36	50		487	571	203	527	231	178	301	309	155
2008	4984	636	151	127	83	96	85	58		541	515	161	980	308	441	243	423	136
2009	5350	1117	245	147	92	157	108	113		596	525	151	679	339	246	262	481	92
2010	4651	332	401	119	106	179	63	63		520	483	419	567	256	255	239	523	126
2011	5538	1842	216	123	203	124	24	43		483	508	230	447	269	290	220	382	134
2012	4792	1132	200	134	267	146	49	73		328	479	211	450	302	281	241	426	73
2013	4446	844	251	181	196	22	46	50	26	429	520	157	488	351	276	202	308	99
2014	4644	771	172	118	175	98	57	67	18	456	531	132	856	255	288	235	334	81

Sour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d.).

구는 관광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로는 Cho Kwang-Ick and Im Chae-Young (2001), Choi Seung-Mook and Kim Nam-Jo (2002), Kim Han-Ju (2011/2014), Kim Kyu-Ho and Kim Sah-Hun (1998), Kim Seong-Sup, Ahn Young-Hee and Yoon Seung-Hyun (2006), Ko Sook-Hee (2001), Lee Choong-Ki and Park Chang-Kyu (1996), Lee Kang-Wook and Choi Seung-Mook (2003), Park Ja-Yeon and Kim Seong-Seop (2012), Suh Jung-Kyo (2003)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특정 지역축제나 이벤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Kim Han-Ju and Lee Choong-Ki (2007), Kim Sang-Ho (2004), Kim Sang-Ho and Yeo Young-Suk (2009), Kwon Tae-Il (2009), Lee Choong-Ki (2009), Lee Choong-Ki, Seo Tae-Yang and Park Joung-Koo (2008), Lee Chung-Ki and Choi Young-Jun (2010), Lee Chung-Ki, Lee Jin-Hyung and Song Hak-Jun (2007), Lee Chung-Ki, Yoo Yoo-Sick and Lee Byung-Won (2008), Liu Qian-Xun, Kang Joo-Hoon and Bae Joo-Han (2013)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관광산업이나 지역 축제의 경제적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어 축제나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이는 축제의 수나 개최기간 등에 영향을 주어 상당히 많은 수의 축제가 개최되는 경

향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는 관광학계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축제와 관련한 연구들에 따르면 축제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경영·경제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sup>5)</sup> 축제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축제의 내용이나 지역차별성과 지속성 등에 대한 관심이 적어 중복 축제나 일회성에 그치는 축제의 경향에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지 않은 축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지만,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연구만큼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지 않은 축제의 경제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특정 지역이나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Kim Sung-Hyun (2005)의 연구는 축제에 산, 산업승수, 기반산업, 관람객수가 경제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Boo Sug-Jin and Han Chun-Young (2010)의 연구는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지각된 환경단서요인이 어떻게 방문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축제 방문자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및 축제 품질 만족도에 대해서는 Shin Jai-Gi and Jeong Hwa-Min (2011) and Kim Jun-Hwan and Lee Hang (2013)의 연구가 있다. Suk Ho-Won (2010)은 1995~2008년 기간 동안 이산시간로지스틱모형(discrete time logistic model)을 이용하여 지역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채택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

4) Kwon Tae-Il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축제위원회와 연구자의 방문객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석결과 축제위원회 측에 비하여 지역경제 생산과급효과도 매우 낮게 추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5) Hong Sung-Hwa, Choi Byong-Gil and Lee Sung-Eun (2006)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경영·경제 분야(76.5%)에 기반하며, 연구주제 또한 마케팅 및 경제효과(39.8%)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분석하였다. 축제를 채택한 이웃시군의 수가 증가할수록,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문화공간수가 증가할수록 축제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Yoo-Jin (2011)의 연구는 시군 단위 지방정부의 문화수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연시설, 전시시설, 전통교육시설,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예술단이 산업체 종사자수, 등록자동차수, 금융기관수, 사설학원수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정 결과 국가지정문화재와 예술단을 제외한 설명변수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와 같이 전국 또는 지역 총계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사전적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사후적 연구들은 설문조사와 같이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지역축제가 경제전체 또는 지역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축제가 우리나라 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축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총계 변수는 소비지출이 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소비지출과 축제와 관련이 깊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하여 축제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 III.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

#### 1. 추정방법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계자료를 사용하는 실증 추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되

는 한계도 나타나곤 한다.<sup>6)</sup> 예를 들면, 축제의 수가 많고 개최기간이 길게 되면 혼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잡비용은 축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을 통해 산정하며, 이 지출비용은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추산된다. 방문객수와 설문조사를 통한 지출액은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sup>7)</sup> 그러나 자료 집계의 신뢰도와 지역별 시계열의 미비로 이에 대한 자료를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축제 관광객의 지출액을 지역패널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전 시도에 걸쳐 구득 가능한 자료를 축제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행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축제의 개최계획을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수와 축제기간 및 축제예산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축제변수로서 16개 시도의 축제의 수와 축제기간 합계를 사용하였다.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역축제의 경제적·문화적 역할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새롭게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새로운 지역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축제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를 판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라고도 할 수 있다.<sup>8)</sup>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6)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방문객수나 지출 등의 자료가 지역 내부의 방문객수와 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와 식별할 수가 없어, 방문객수와 지출 그 자체로 과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6)의 연구는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에서 축제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방문객수, 지출액 등의 숫자를 가꾸는 경향(social bravado)이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와) 지역 문화의 창출과 계승을 통하여 지역을 세계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재화/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고 지속시키고, 방문객을 통하여 지출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축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제는 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지출에 의한 경로로 지역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지역의 방문객을 통한 소비지출의 증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축제가 지역의 총계 소비지출과 개별 소비지출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소비와 지역축제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소비-축제의 관계를 단순한 추정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축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식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sup>10)</sup> 소비는 장기적으로 균형성장경로를 따라 움직이지만,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에는 부분적으로 조정되고 시차를 가지고 조정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장기적인 균형성장경로를 따라 소비가 움직이는 것을 가정하여 소비-소득의 비율이 일정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ln(C/Y)_{i,t} = b_{0i} + b_1 \ln(C/Y)_{i,t-1} + b_2 \ln z_{i,t} + v_{i,t} \quad (1)$$

여기서  $C$ 는 소비지출을,  $Y$ 는 소득을,  $z$ 는 축제변수를 의미한다. 축제 개최가 증가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축제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계수  $b_2$ 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식(1)에서 축제변수가 소비 의사결정에 대하여 외생적인 변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1)에서는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일치추정치를 구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구변수를 사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축제에 대한 도구변수는 오차항과 상관이 없으나 축제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찾아야 한다.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축제변수의 도구변수를 찾는 것이 축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설명하는데 중점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축제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선택하였다. 축제의 누적개최횟수(*hstf*), 축제예산(*budf*), 관광호텔 외국인 연속박객수(*styf*)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축제누적개최횟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의 개최횟수의 합으로 축제의 수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축제의 숫자가 많으면 축제의 개최횟수도 증가할 수 있다. 반면에 축제의 개최횟수는 이미 과거에 개최된 축제 연혁을 의미하므로 해당 지역의 소비지출 결정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다. 축제예산의 경우에는 대체로 축제의 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축제 예산은 대체로 지역의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 의하며 이는 해당연도의 소비가 결정되기 이전에 결정된

8) Kwon Tae-Il (2009)의 연구에서 이러한 목적을 강조하였다.

9)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부적으로 지역주민 간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것이 지역축제의 핵심이라는 논의는 Cho Bae-Haeng and Park Jong-Jin (2007), Lee Jeong-Rock and Ahn Zong-Hyun (2004)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 본고에서 사용한 소비지출함수 구성은 Tenhofen and Wolff (2010)에서 설정한 소비함수 설정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지역축제변수를 정부지출과 유사한 형태로 취급하였으며, 이자율은 전국적으로 같으므로 시간효과로 통제할 수 있다.

Table 3. Summary Statistics of Festival Variables

	Mean	Std. Dev.	Variance	Percentiles				
				5%	25%	50%	75%	95%
$\ln(numf)$	3.7972	0.9884	0.9770	2.3025	3.2188	3.8176	4.2341	6.3189
$\ln(dayf)$	5.5353	1.0869	1.1814	3.9120	4.8362	5.4847	6.1224	8.2327

다. 이러한 의미에서 축제누적개최횟수와 축제 예산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축제의 도구변수로 관광호텔 외국인 연속박객수도 사용하였다. 외국인 숙박객수는 축제가 흥미롭고 매력적인 경우에는 증가할 것이고, 축제의 숫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외국인 숙박객은 해당 지역의 소득이나 지출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외생적인 변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sup>11)</sup>

또한, 식(1)의 축제변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이 그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가 다수이고 다양하다면 방문했을 때 다수의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도 있다. 반대로 축제 지역이 방문객 수나 축제의 수가 많아 혼잡스럽다면 축제 방문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는 축제의 수나 방문객수가 그 지역의 소비지출에 선형적인 영향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축제 변수의 제곱항을 식(1)에 포함하여 비선형적인 축제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비선형적인 함수를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소비지출을 극대화하는 적정 축제변수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2. 자료

자료는 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도별 자료는 지역축제의 수와 예산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계된 2006년~2016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도별 GRDP의 경우에는 2014년까지 자료가 발표되는 관계로 여기서는 2006~2014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구자료는 지역의 추계인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비지출은 GRDP와 같이 지역소득계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축제에 대한 자료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축제 총괄계획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역축제의 수, 축제기간, 누적 개최횟수, 예산 등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축제 변수로 축제수와 축제 개최기간을 사용하였다. 지역축제의 수( $numf$ )는 해당 지역의 축제를 모두 합한 숫자를 의미한다. 축제의 숫자가 증가하면 개최되는 축제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축제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축제의 개최기간( $dayf$ )은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기간을 모두 합한 개최 기간 총합을 의미한다. 지역축제의 누적개최횟수( $hstf$ )와 예산( $budf$ )은 도구변수로 이용하였다. 누적개최횟수는 축제의 연혁을 모든 축제에 대하여 합한 횟수를 의미한다. 누적개최횟수가 크면 축제가 오랫동안 개최되어 축제의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축제예산은 축제가 개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합을 의미한

11) 내국인 숙박객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 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축제기간이 대체로 짧기 때문에 관광호텔 숙박객수가 축제 방문객수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한 지역축제의 경우 대부분 2일 이상의 축제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축제가 하루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숙박을 하는 경우가 여행 관리상 더 편리할 수 있다.



Table 4. GMM Estimation of Equation (2): Consumption Expenditure

$\Delta \ln(C/Y)_{i,t}$	(1) GMM	(2) GMM	(3) GMM	(4) GMM
$\Delta \ln(C/Y)_{i,t-1}$	-0.6812 (0.3801)*	-0.6792 (0.3820)*	-0.0193 (0.2335)	-0.0552 (0.2437)
$\Delta \ln(numf)$	0.0013 (0.0063)		0.0550 (0.0269)**	
$\Delta[\ln(numf)]^2$			-0.0073 (0.0034)**	
$\Delta \ln(dayf)$		0.0071 (0.0068)		0.0329 (0.0194)*
$\Delta[\ln(dayf)]^2$				-0.0028 (0.0016)*
No. of obs	112	112	96	96
Test of endogeneity GMM C statistics $\chi^2$	1.7743 (0.4118)	2.1649 (0.3388)	3.1412 (0.3704)	0.1296 (0.9881)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 Hansen's J $\chi^2$	7.4423 (0.1898)	6.0910 (0.2975)	19.1017 (0.2634)	20.6971 (0.1905)
Instruments	$\Delta \ln(C/Y)t-2$ $\Delta \ln(styf)t$ $\Delta \ln(budf)t$ $\Delta \ln(hstf)t$	$\Delta \ln(C/Y)t-2$ $\Delta \ln(styf)t$ $\Delta \ln(budf)t$ $\Delta \ln(hstf)t$	$\Delta \ln(C/Y)t-2$ $\Delta \ln(styf)t$ $\Delta \ln(budf)t$ $\Delta \ln(hstf)t$ $\Delta[\ln(styf)t]2,$ $\Delta[\ln(budf)t]2$ $\Delta[\ln(hstf)t]2$ $[\Delta \ln(styf)t]2,$ $[\Delta \ln(budf)t]2$ $[\Delta \ln(hstf)t]2$	$\Delta \ln(C/Y)t-2$ $\Delta \ln(styf)t$ $\Delta \ln(budf)t$ $\Delta \ln(hstf)t$ $\Delta[\ln(styf)t]2,$ $\Delta[\ln(budf)t]2$ $\Delta[\ln(hstf)t]2$ $[\Delta \ln(styf)t]2,$ $[\Delta \ln(budf)t]2$ $[\Delta \ln(hstf)t]2$

Note: Numbers in ( ) are standard errors. \*\*\*, \*\*, \* correspond to significance level of 1%, 5%, 10%, respectively.

다. 축제 예산은 공공과 민간 예산을 모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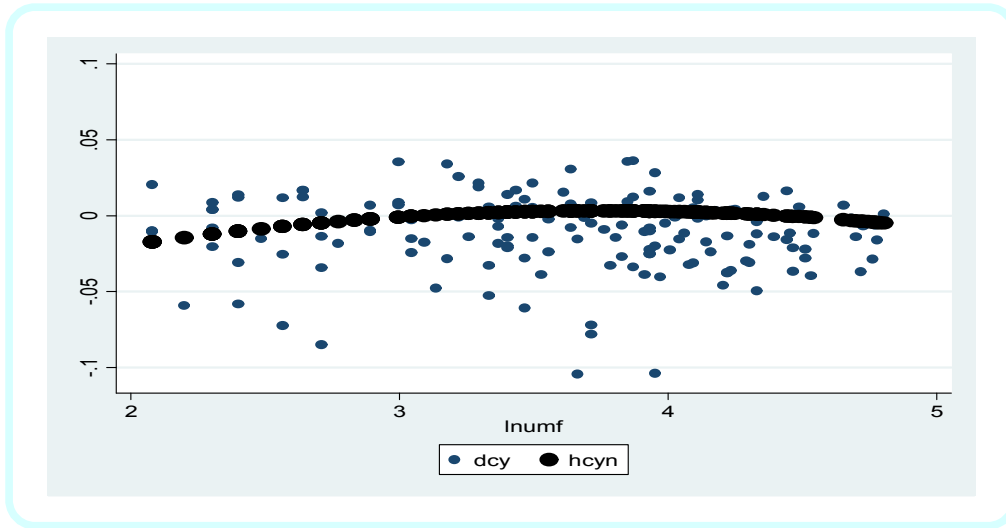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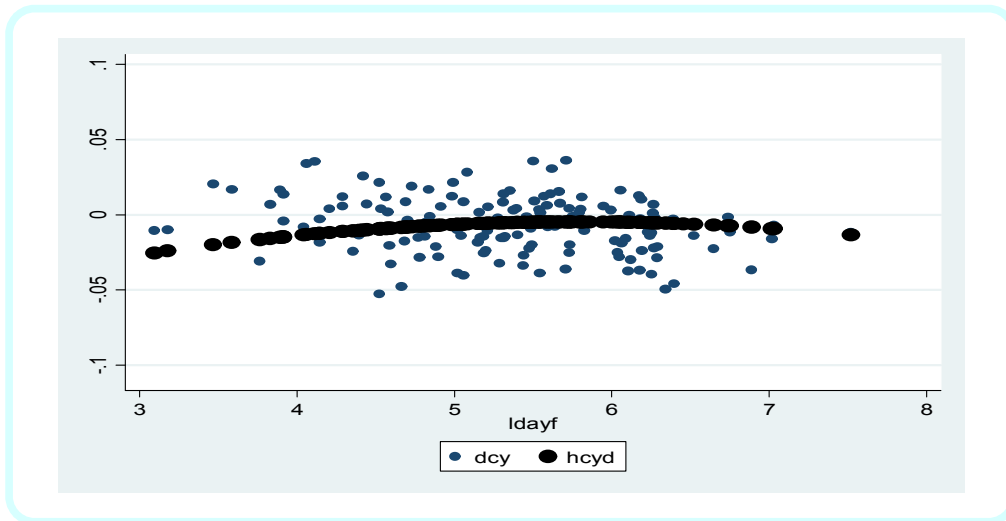
또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관광호텔 내 외국인 연속박객수와 지역 지점별 방문객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관광호텔 외국인 연속박객수의 경우에는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sup>12)</sup>

1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연속박객수의 경우에는 외생적인 변수이며, 지역축제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연속박객수는 호텔에 머무른 날에 숙박객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면 2인이 3일을 호텔에 머물렀다면 연속박객수는 6일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속박객수는 숙박객수보다 관광소비를 측정하는데 더 적합하다.

### 3. 추정 결과

축제의 기능이 한 자리에 모여 즐기는 이벤

Fig. 1.  $\Delta \ln(C/Y)$  and  $\ln(\text{numf})$ Fig. 2.  $\Delta \ln(C/Y)$  and  $\ln(\text{dayf})$ 

트라고 한다면 축제의 수나 기간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축제와 소비의 관계를 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이다. 여기서는 축제의 수나 기간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비의 추정식은 식(1)을

차분하여 전환하면 아래의 식(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ln(C/Y)_{i,t} = & b_1 \Delta \ln(C/Y)_{i,t-1} \\ & + b_2 \Delta \ln z_{i,t} + \Delta v_{i,t} \quad (2) \end{aligned}$$

Table 5. GMM Estimation of Equation (2): Consumption Expenditure for Transpo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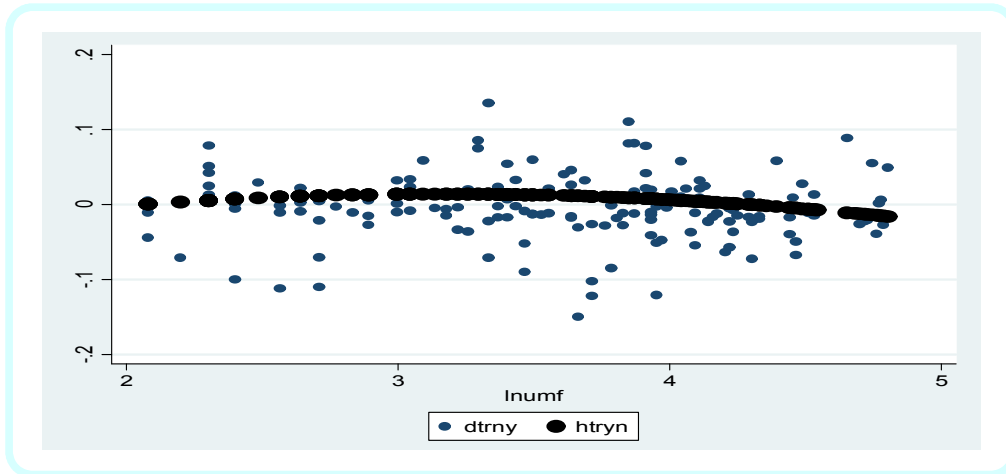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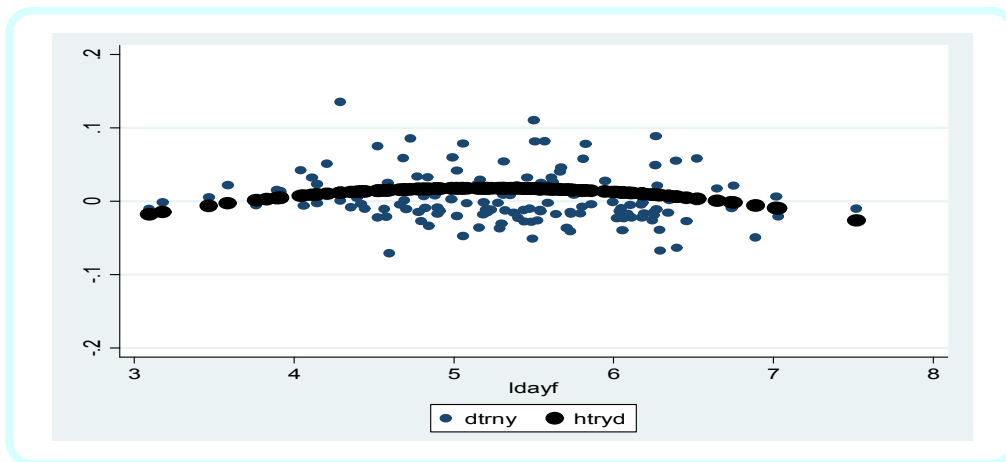
$\Delta \ln (TRN/Y)_{i,t}$	(1) GMM	(2) GMM	(3) GMM	(4) GMM
$\Delta \ln (TRN/Y)_{i,t-1}$	-0.7181 (0.5015)	-0.7303 (0.5166)	-0.2204 (0.1290)*	-0.2041 (0.1503)
$\Delta \ln (numf)$	-0.0121 (0.0104)		0.0718 (0.0245)***	
$\Delta [\ln (numf)]^2$			-0.0113 (0.0032)***	
$\Delta \ln (dayf)$		-0.0071 (0.0115)		0.0840 (0.0396)**
$\Delta [\ln (dayf)]^2$				-0.0081 (0.0039)**
No. of obs	112	112	96	96
Test of endogeneity	1.8717 (0.3922)	2.1257 (0.3455)	0.0652 (0.9957)	0.9613 (0.8106)
GMM C statistics $\chi^2$				
T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	4.2951 (0.1168)	4.6604 (0.0973)*	12.2351 (0.7276)	11.3849 (0.7851)
Hansen's J $\chi^2$				
Instruments	$\Delta \ln (TRN/Y)_{t-2}$ $\Delta \ln (styf)_{t-2}$ $\Delta \ln (budf)_{t-2}$ $\Delta \ln (hstf)_{t-2}$	$\Delta \ln (TRN/Y)_{t-2}$ $\Delta \ln (styf)_{t-2}$ $\Delta \ln (budf)_{t-2}$ $\Delta \ln (hstf)_{t-2}$	$\Delta \ln (TRN/Y)_{t-2}$ $\Delta \ln (styf)_{t-2}$ $\Delta \ln (budf)_{t-2}$ $\Delta \ln (hstf)_{t-2}$ $\Delta [\ln (styf)_{t-2}]^2$ $\Delta [\ln (budf)_{t-2}]^2$ $\Delta [\ln (hstf)_{t-2}]^2$ $[\Delta \ln (styf)_{t-2}]^2$ $[\Delta \ln (budf)_{t-2}]^2$ $[\Delta \ln (hstf)_{t-2}]^2$	$\Delta \ln (TRN/Y)_{t-2}$ $\Delta \ln (styf)_{t-2}$ $\Delta \ln (budf)_{t-2}$ $\Delta \ln (hstf)_{t-2}$ $\Delta [\ln (styf)_{t-2}]^2$ $\Delta [\ln (budf)_{t-2}]^2$ $\Delta [\ln (hstf)_{t-2}]^2$ $[\Delta \ln (styf)_{t-2}]^2$ $[\Delta \ln (budf)_{t-2}]^2$ $[\Delta \ln (hstf)_{t-2}]^2$

Note: Numbers in ( ) are standard errors. \*\*\*, \*\*, \* correspond to significance level of 1%, 5%, 10%, respectively.

식(2)의 추정에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GMM 추정 방법을 이용하였다.<sup>13)</sup> 축제변수에 대한 도구변수 역시 앞서의 설명한 변수들을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식(2)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13) 식(2)의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OLS로 추정하는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GMM을 이용하게 되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구변수는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오차항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면서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상기의 <Table 4>에 따르면 지역축제의 수와 개최기간이 소비지출에 유의적으로 선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소비는 지역축제와 비선형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를 극대화하는 축제의 수와 기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의 <Table 4>에서 (3)과 (4) 열의 비선형 관계 추정 결과에 따르면, 소비를 극대화하는 축제의 수와 축제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를 극대화하는 축제의 수는 약 43개 정도이고 축제기간은 약 356일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Fig. 3.  $\Delta \ln(TRN/Y)$  and  $\ln(numf)$ Fig. 4.  $\Delta \ln(TRN/Y)$  and  $\ln(dayf)$ 

지역축제의 수가 43개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축제 수의 증가가 지역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지만 43개가 넘어서면 지역축제의 수는 소득대비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축제의 개최기간 역시 이와 유사하게 지역 축제기간이 356일을 넘길 경우 지역축제의 축제기간 증대는 오히려 소득대비 소비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로부터 지역의 소비지출을 증

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수와 개최기간을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래의 <Fig. 1> and <Fig. 2>는  $\Delta \ln(C/Y)$ 와 지역축제의 수와 개최기간의 관계와 추정치를 표현하고 있다.

소비지출의 항목 중 축제와 관련이 있는 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은 우선적으로 교통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Table 6. Estimation of Equation (2): Consumption Expenditure for Entertainment &amp; Culture

$\Delta \ln(ECL/Y)_{i,t}$	(1) GMM	(2) GMM	(3) GMM	(4) GMM
$\Delta \ln(ECL/Y)_{i,t-1}$	0.0665 (0.3489)	0.1091 (0.3948)	0.1125 (0.2448)	0.0929 (0.2634)
$\Delta \ln(numf)$	0.0091 (0.0079)		0.1103 (0.0492)**	
$\Delta[\ln(numf)]^2$			-0.0145 (0.0064)**	
$\Delta \ln(dayf)$		0.0037 (0.0080)		0.0498 (0.0357)
$\Delta[\ln(dayf)]^2$				-0.0045 (0.0031)
No. of obs	112	112	96	96
Test of endogeneity	0.2829 (0.8681)	0.5193 (0.7713)	3.2618 (0.3530)	0.5544 (0.9068)
GMM C statistics $\chi^2$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	6.3393 (0.0420)**	6.9646 (0.0307)**	13.8628 (0.3530)	16.1334 (0.0959)*
Hansen's J $\chi^2$				
Instruments	$\Delta \ln(ECL/Y)_{t-2}$ $\Delta \ln(styf)t$ $\Delta \ln(budf)t$ $\Delta \ln(hstf)t$	$\Delta \ln(ECL/Y)_{t-2}$ $\Delta \ln(styf)t$ $\Delta \ln(budf)t$ $\Delta \ln(hstf)t$	$\Delta \ln(ECL/Y)_{t-2}$ $\Delta \ln(styf)t$ $\Delta \ln(budf)t$ $\Delta \ln(hstf)t$ $\Delta[\ln(styf)t]^2$ $\Delta[\ln(budf)t]^2$ $\Delta[\ln(hstf)t]^2$ $[\Delta \ln(styf)t]^2$ $[\Delta \ln(budf)t]^2$ $[\Delta \ln(hstf)t]^2$	$\Delta \ln(ECL/Y)_{t-2}$ $\Delta \ln(styf)t$ $\Delta \ln(budf)t$ $\Delta \ln(hstf)t$ $\Delta[\ln(styf)t]^2$ $\Delta[\ln(budf)t]^2$ $\Delta[\ln(hstf)t]^2$ $[\Delta \ln(styf)t]^2$ $[\Delta \ln(budf)t]^2$ $[\Delta \ln(hstf)t]^2$

Note: Numbers in ( ) are standard errors. \*\*\*, \*\*, \* correspond to significance level of 1%, 5%, 10%, respectively.

는 오락문화 관련 지출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음식과 숙박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는 소비지출 중 축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지출로서 교통지출(TRN), 오락문화지출(ECL), 음식숙박지출(FDS)과 축제변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체 소비지출과 마찬가지로 교통지출에 대해서도 축제가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의 수나 기간이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교통지출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Table 5>의 (3)과 (4)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축제의 수는 약 24개, 축제기간은 약 179일이 넘어서면 교통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은 축제를 즐기기 위한 지출을 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지출은 소비지출의 항목 중 오락문화에 대한 소비지출로



Fig. 5.  $\Delta \ln(ECL/Y)$  and  $\ln(nu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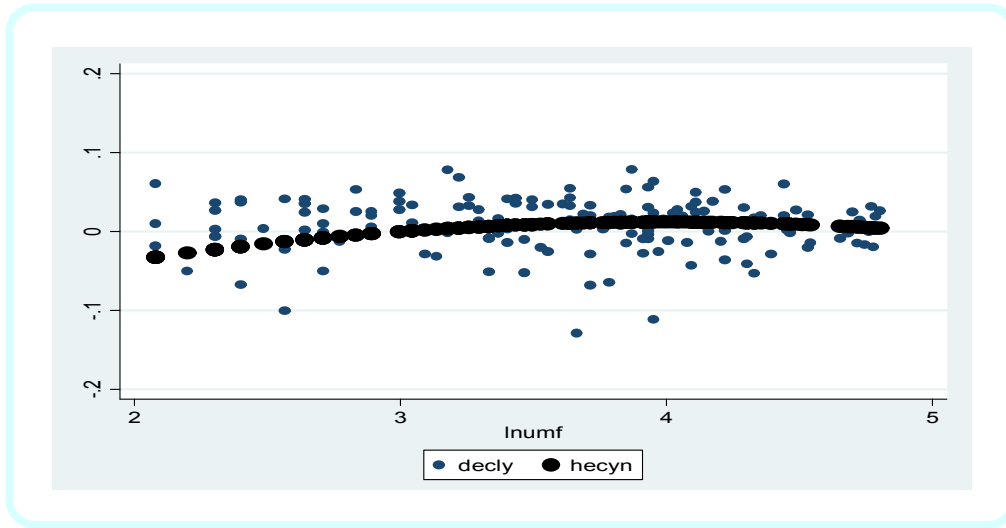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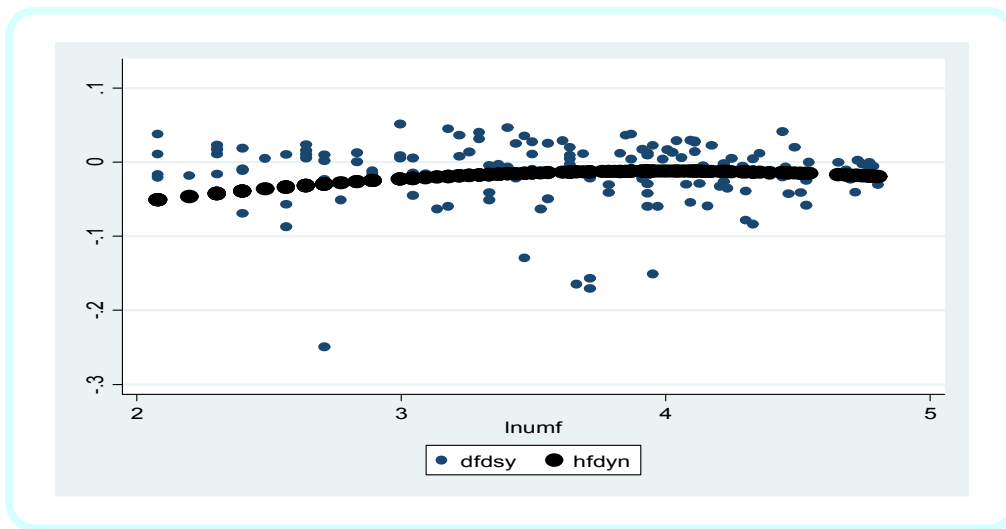


Fig. 6.  $\Delta \ln(FDS/Y)$  and  $\ln(numf)$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오락문화 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able 6>은 지역축제의 수와 기간이 오락문화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과 비선형적인 영향을 추정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오락문화지출 역시 축제에 대해서 비선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오락문화지출은 축제수와는 유의적인 관련이 있지만 축제기간과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축제의 수는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오락문화 지출을 증가시키지만, 일정 수준 이

Table 7. GMM Estimation of Equation (2): Consumption Expenditure for Foods &amp; Accommodations

$\Delta \ln(FDS/Y)_{i,t}$	(1) GMM	(2) GMM	(3) GMM	(4) GMM
$\Delta \ln(FDS/Y)_{i,t-1}$	-0.6200 (0.3145)**	-0.7142 (0.3476)**	-0.2944 (0.1787)*	-0.2840 (0.1895)
$\Delta \ln(numf)$	0.0135 (0.0104)		0.0841 (0.0276)***	
$\Delta[\ln(numf)]^2$			-0.0105 (0.0034)***	
$\Delta \ln(dayf)$		0.0217 (0.0107)**		0.0586 (0.0297)**
$\Delta[\ln(dayf)]^2$				-0.0041 (0.0026)
No. of obs	112	112	96	96
Test of endogeneity GMM C statistics $\chi^2$	2.9708 (0.2264)	4.9732 (0.0832)*	1.2103 (0.7505)	0.6752 (0.8790)
Test of overidentifying restriction Hansen's J $\chi^2$	10.7436 (0.0567)*	7.8009 (0.1676)	22.0867 (0.1404)	21.2768 (0.1681)
Instruments	$\Delta \ln(FDS/Y)_{t-2}$ $\Delta \ln(styf)_{t-2}$ $\Delta \ln(budf)_{t-2}$ $\Delta \ln(hstf)_{t-2}$	$\Delta \ln(FDS/Y)_{t-2}$ $\Delta \ln(styf)_{t-2}$ $\Delta \ln(budf)_{t-2}$ $\Delta \ln(hstf)_{t-2}$	$\Delta \ln(FDS/Y)_{t-2}$ $\Delta \ln(styf)_{t-2}$ $\Delta \ln(budf)_{t-2}$ $\Delta \ln(hstf)_{t-2}$ $[\Delta \ln(styf)_{t-2}]^2$ $[\Delta \ln(budf)_{t-2}]^2$ $[\Delta \ln(hstf)_{t-2}]^2$	$\Delta \ln(FDS/Y)_{t-2}$ $\Delta \ln(styf)_{t-2}$ $\Delta \ln(budf)_{t-2}$ $\Delta \ln(hstf)_{t-2}$ $[\Delta \ln(styf)_{t-2}]^2$ $[\Delta \ln(budf)_{t-2}]^2$ $[\Delta \ln(hstf)_{t-2}]^2$

Note: Numbers in ( ) are standard errors. \*\*\*, \*\*, \* correspond to significance level of 1%, 5%, 10%, respectively.

상으로 증가하면 오락문화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의 수가 45개 정도인 경우 오락문화지출을 극대화시키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의 수만이 오락문화지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축제의 수가 오락문화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표본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를 즐기는 방법은 축제기간 동안 그 지

역에 머무르면서 즐길 수도 있으며 축제기간 동안 축제 이외의 관광지를 관광하는 등 여러 날 머무르면서 관광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날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 음식과 숙박에 대한 지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축제가 음식숙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Table 7>은 지역축제의 수와 기간이 음식숙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과 비선형 추정식으로 추정한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음식숙박지출에 대한 축제의 영향은 축제의 수와 축제기간이 다른 유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제의 수는 음식숙박지출에 대해서 비선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제의 수가 약 55개 정도일 때 음식숙박지출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축제기간은 선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축제기간은 길수록 음식숙박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축제기간이 길어지면 음식숙박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축제기간이 증가하면 더 오랜 시간을 축제 지역에 머무르고 음식과 숙박에 지출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지역축제와 소비지출 관계의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역축제의 경제적 역할과 지역축제의 최적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축제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역축제는 지역의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일정 수준의 축제 수나 기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의 소비지출을 극대화하는 축제의 수와 기간은 각각 43개와 356일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어, 지역축제는 소비를 극대화하는 수준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축제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오히려 혼잡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함을 함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축제가 소비지출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축제의 수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지출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교통지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지출을 극대화하는 축제의 수나 기간은 각

각 24개, 179일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락문화지출의 경우에는 축제의 수가 증가할수록 오락문화지출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를 넘어서면 오락문화지출이 줄어드는 비선형적 관계가 추정되었다. 오락문화지출을 극대화하는 적정 축제의 수는 약 45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기간은 오락문화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오락문화지출은 축제의 수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축제가 열리는 것이 오락문화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오락문화지출이 축제기간에 의존하지는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음식숙박지출의 경우에는 축제기간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축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음식숙박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식문화지출을 극대화하는 축제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체로 축제의 수가 55개 수준에서 음식문화지출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비선형적인 모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개별 지역의 축제의 수는 약 45개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기간은 약 350일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축제당 축제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8일 정도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별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소비지출 항목을 극대화하는 적정 축제의 수는 항목마다 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축제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숙박지출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오락문화지출은 축제기간과 무관하고, 교통지출은 이를 극대화하는 적정 축제기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본고에서는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지역축제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관광산업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고용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도 고용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향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가 지역축제-고용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과제로서 축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Boo, Sug-Jin and Chun-Young Han (2010), "The Effect of Perceived Environment Cues on Festival Visitors' Satisfaction and Loyalty: Comparison Study on Gyeongju & Boryeong Local Festival",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2(4), 107-125.
- Cho, Bae-Haeng and Jong-Jin Park (2007), "Residents' Perception Differences on the Community Festival Impac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3(1), 68-81.
- Cho, Kwang-Ick and Chae-Young Im (2001), "MRIO Model and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dustry: Focusing on the Kangwon Area",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4(3), 209-229.
- Choi, Seung-Mook and Nam-Jo Kim (2002), "The Multi-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of Tourism Industries Using Tourism Ratios and Multi-regional Transaction Tabl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5(4), 143-160.
- Choi, Yoo-Jin (2011), "Regional Culture as an Economic Vitalization Factor: A Panel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1(1), 163-185.
- Hong, Sung-Hwa, Byong-Gil Choi and Sung-Eun Lee (2006), "A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on Event and Festival Appeared in Korean Tourism Journals: A Review of Papers in 1995-2004 Period",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0(6), 95-111.
- Kim, Han-Ju (2011), "Comparative Analysing the Economic Impacts of the Tourism Industry in 6 Areas Using the Regional I-O Mode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3(6), 5-21.
- Kim, Han-Ju (2014), "Comparative Analysing the Economic Impacts of the Tourism Industry in 16 Large Cities & Provinces Using the Regional I-O Mode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6(3), 5-24.
- Kim, Han-Ju and Choong-Ki Lee (2007),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10th PIFF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9(4), 7-26.
- Kim, Jun-Hwan and Hang Lee (2013), "The Influences of Local Festival's Experiential Marketing on Service Quality and Overall Satisfaction: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9(3), 397-417.
- Kim, Kyu-Ho and Sah-Hun Kim (1998), "Economic Impacts of Tourism in a Regional Context: An Input-Output Analysis for the Kyongju Area",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2(10), 151-171.
- Kim, Sang-Ho (2004),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the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6(3), 101-116.
- Kim, Sang-Ho and Young-Suk Yeo (2009),

- "The Economic Impacts of Regional Festival: The Case of 2007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3(2), 57-76.
- Kim, Seong-Sup, Young-Hee Ahn and Seung-Hyun Yoon (2006), "Estimation of the Economic Impacts of Exhibition Industry in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8(3), 191-210.
- Kim, Sung-Hyun (2005), "The Impact of Local Festivals on Local Econom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4), 221-246.
- Ko, Sook-Hee (2001), "An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mpact of Cultural Events by the Local governments",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0(2), 289-307.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6), *Investigati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Local Festivals in Korea*, Sejong,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won, Tae-Il (2009), "Investigation of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Behavioral Patterns and the Estimate Economic Effect of Participants of 2008 Yul-Gok Festival",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3(4), 53-66.
- Lee, Choong-Ki (2009),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Kangwon Land Resort Casino on the Gangwon Province Economy and Linkage Effects: Using a Survey-based Regional Input-Output Model", *Tourism Study*, 24(2), 145-158.
- Lee, Choong-Ki and Chang-Kyu Park (1996),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Korean Casino Industr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9(2), 27-45.
- Lee, Choong-Ki, Tae-Yang Seo and Joung-Koo Park (2008),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07 Gyeongju World Culture Expo: Survey-based on Regional Input-Output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14(3), 237-255.
- Lee, Chung-Ki and Young-Jun Choi (2010),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a Boryeong Mud Festival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Tourism Study*, 25(5), 83-100.
- Lee, Chung-Ki, Jin-Hyung Lee and Hak-Jun Song (2007),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a Birdwatching Festival Us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9(2), 19-34.
- Lee, Chung-Ki, Yoo-Sick Yoo and Byung-Won Lee (2008),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Punggi Ginseng Festival: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2(2), 21-33.
- Lee, Jeong-Rock and Zong-Hyun Ahn (2004), "A Study on the Visitors' Satisfaction Decisive Factors of the Local Festival: In Case of Simchung Festival in Goksung Coun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0(3), 642-653.
- Lee, Kang-Wook and Seung-Mook Choi (2003), *An Economic Impact Anal-*



- ysis of Regional Tourism Industry* (Basic Research, No. 2003-13),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Liu, Qian-Xun, Joo-Hoon Kang and Joo-Han Bae (2013), "2018 Pyeong Chang Winter Olympic Game's Economic Impacts on the Kangwon Province Using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5(1), 47-62.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d.), *Local Festival Information (2006~2016)* (Webpage). Available from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info/dataDetail.html?boardId=NB RD-1001411&boardType=000035&searchText> (accessed November 29, 2016)
- Oh, Hoon-Sung (2013), *A Study to Improve System Management with Application of Sunset System in Selection of Cultural Tourism Festival* (Basic Research, No. 2013-20),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Park, Ja-Yeon and Seong-Seop Kim (2012),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Convention Industry Using Inter-regional Input-Output Approach",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4(2), 177-196.
- Shin, Jai-Gi and Hwa-Min Jeong (2011), "A Study on the Visitor'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of Regional Culture Festival",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7(4), 545-559
- Suh, Jung-Kyo (2003), "Economic Effects Analysis of Investment on Cultural Industry", *Kyungjehak-Yongu*, 51(1), 61-87.
- Suk, Ho-Won (2010), "Study on Regional Festival Diffusion As Policy Innovation: Focusing on Kyunggi Provinc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4(1), 183-206.
- Tenhofen, J. and G.B. Wolff (2010), *Does Anticipation of Government Spending Matter? The Role of (Non-)Defense Spending* (Bonn Econ Discussion Paper, No. bgse12\_2010), Bonn, Germany: Bonn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Bonn.